

포스코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노동자를
짓밟습니다

2014.3.14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의 지독한 노조 죽이기

해고자 복직 투쟁 7년

포스코는 삼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무노조 정책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 안에 있는 사내하청업체들도 도급계약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있던 노조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은 사내하청업체에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유출되며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해고자 발생에서 노조 무력화까지 탄압하는 방식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내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해고된 해고자는 7년째 복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해산하라는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말살 정책에 맞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끈질기고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인면수심, 포스코사내하청업체 해고 후 암투병 조합원에게 추가 소송 걸어



현재 암투병중인 허형길 조합원(전 분회장)은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인 (주)DSC (덕산)에서 일하다 2010년에 해고된 조합원 중 한 명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돌아가기 위해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던 중, 회사측은 지역의 폭력배까지 동원해 폭행하며 노동조합을 해산하도록 협박했고, 온갖 손해배상소송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와중에 허형길 조합원은 간암,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아 투병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허형길 조합원을 비롯해 여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청구 등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저들은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허형길 조합원의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주)EG테크 회장

박대통령 동생, 대법원 복직 판결도 무시 동생부터 정상화하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주)EG테크는 양우권 조합원(분회장)을 2011년 4월 15일 해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재판한 결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부당 해고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기는 커녕, 2011년 12월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또다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고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여전히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엔 포스코라는 배경만이 아니라, 사내하청인 (주)EG테크의 회장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란 이유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일가는 대법원도 무시하는 하늘 위의 하늘, 무법천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정책과 사내하청의 노조탄압 사례들〉

2007	영국산업 권재현 분회장 부당해고
2007	(주)덕산 노동조합 교섭위원 3명 해고
2009	(주)삼화산업 청산 협박
2009~11년	(주)삼화산업 교섭위원 등 3명 해고
2010	(주)덕산 교섭위원 등 3명 추가 해고
2011	(주)덕산 조합원 납치, 감금 및 협박, 조합원 가족에게 폭력 행사
2011	(주)삼화산업 노조말살 시나리오 유출
2011	(주)EG테크 분회장 해고
2014	현재까지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 해산 또는 어용노조로의 전환 협박, 법원의 복직판결 무시 등